

# “研究와 革新의 자세가 다듬어 國家發展위한 力量결집을”

급변하는 오늘의 國際秩序속에서 벽찬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망의 1992년 壬申年 새해아침에 귀빈여러분을 모시고 과학기술계 원로, 선배, 동료여러분과 함께 「科學技術人新年朝餐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國事に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왕림하여 주신 鄭元植 國務總理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1년은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만큼 변화무쌍한 격변의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페르시아만사태로부터 시작하여 東歐共產政權의 몰락은 물론 급기야는 세계공산주의의 종주국인 蘇聯聯邦이 해체되는 그야말로 역사적이고 驚異의인 사건이 기록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분단 46년 그리고 南北對話 20년만에 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南北和解의 場이 열리는 민족의 애뜻한 희열을 맛보았는가하면 경제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을 중심으로한 국제적 통상마찰과 압력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1992년은 국가적차원에서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가야할 것이며, 또한 그것은 오직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對外經濟力培養」만이 그 해결방법이라는 데에 우리 모두가 認識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에



閔寬植 科總 명예회장

우리들에게 부과된 책임과 사명은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연구풍토의 정착은 물론 대외경쟁력을 배양키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科學技術暢達 意志」가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國務總理주재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통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가 폭넓게 과학기술진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國家元首가 직접 주재한 「科學技術振興會議」에서는 그동안 우리 「科總」을 비

못한 각계에서 논의되고 제기되어온 「科學技術革新綜合對策」이 발표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과학기술의 도약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이룩하고 21세기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대책에서 표방되고 있는 「科學技術振興基金」의 확보문제를 비롯한 소위 「G7」과제로 일컬어지고 있는 「核心先導기술개발사업」이 매년 일관성있게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학기술인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國家百年大計를 내다보면서 연구와 혁신의 자세를 갖고 기술개발과 과학진흥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자체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기필코 우리도 2000년대 「先進福祉社會」로의 진입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먼저 국민의식속에 창조·능률·합리의 정신이 깃드는 과학기술풍토가 조성됨은 물론 경제성장과 복지향상, 그리고 환경개선을 이룩하는 요체로서의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우리들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이 대우받는 민주사회가 조속히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맡은바 연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產學協同을 통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기업에서의 투자의욕이 고취되고 국제간의 공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기초연구에 역점을 두면서 연구분위기조성을 위한 별도의 대책과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 증대가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력양성문제를 국가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산업기술력 향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100만과학기술인의 구심체인 「科總」은 올해에도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회학술활동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지위확보

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南北의 화해무드에 발맞추어 汎科學技術界 대표로 구성된 「南北民間科學技術交流推進協議會」의 각종 사업을 民間차원에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科總은 작년에 中國에서 개최한 南北學術會議에 사상최초로 北韓의 과학기술자 45명을 참석시킴으로써 南北間의 진정한 교류의 물고를 뜨는 大歷史를 실현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도에는 南北合意書 제16조 「과학기술교류」에 힘입어 평양—서울간의 학술회의 개최와 인적교류, 공동연구, 용어통일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민족통일의 기반구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中國과 蘇聯을 비롯한 우리 동포과학기술자들을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1만명이상의 우리 과학기술자들을 한데 묶어서 「世界韓民族科學技術者共同體」를 결성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100만 과학기술인의 20년 숙원사업인 「科學技術振興센터」가 금년부터 건립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감격적인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民主自由黨 대표최고위원님과 科學技術處당국에 우리 모든 과학기술인들의 감사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 우리과학기술인의 노력과 예지는 물론 科學技術處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계·언론계·학계·산업계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해와 후원아래에서만 가능하다고 확신하면서 끝으로 새로 맞이하는 壬申年 1992년이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희망찬 역사의 장으로 장식되기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드립니다.